

南坡 洪宇遠의 논설류 산문 연구

禹芝英*

차례

- I. 서론
- II. 친근한 소재를 통한 공감의 확대
- III. 문답의 서술방식을 통한 논리성의 강화
- IV. 우언의 서술방식을 통한 현실 비판
- V. 결론

【국문초록】

南坡 洪宇遠은 仁祖에서 肅宗 연간에 활동한 문인 관료이다. 홍우원의 문집인 『南坡集』은 시와 상소문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記·說·序 등의 산문 작품의 편수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홍우원은 그의 논설류 산문에서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단편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각종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 효과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표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홍우원의 논설류 산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소재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홍우원의 논설류 산문 중 「老馬說」에서는 늙은 말과 주인이 나누는 대화를 중심구도로 하여 필요할 때는 취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인정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을 서술하였고, 「木根枕說」에서는 목침이라는 일상의 소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위정자가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하는 문제에까지 논의를 확대해 갔다.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角說」에서는 뿔이 난 말과 고양이라는 기형의 동물을 소재로 하여 당대 정치 상황을 비판하였고, 「白黑難」에서는 선과 악을 상징하는 색깔인 白과 黑이 서로 별이는 문답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았다.

이들 작품에서는 버려지는 늙은 말, 나무등걸로 만든 목침, 뿔이 난 말과 고양이, 흑색과 백색 등의 친근하거나 흥미를 끌만한 소재를 통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또한 주인과 늙은 말 사이의 대화, 백색과 흑색이 별이는 허구적 문답을 가설하여 답변자의 발언 속에 작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주제를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당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기탁을 통하여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주제어

南坡 洪宇遠, 『南坡集』, 논설류 산문, 문답식 산문, 우의성, 「老馬說」, 「木根枕說」, 「角說」, 「白黑難」.

I. 서론

『星湖僊說』 「人事門」의 한 기사에서는 南坡 洪宇遠(1605~1687)이 과거 시험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 있다. 홍우원이 과거 준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가 나올 곳을 미리 전해주자 다른 사람들은 미리 답안을 준비하였는데 홍우원은 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그 문제가 출제되자 홍우원은 시험을 스스로 포기하였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의리에 해가 될 것이 없다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¹⁾ 홍우원이 출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올곧은 성품이 드러난다.

南坡 洪宇遠(1605~1687)은 仁祖에서 肅宗 연간에 활동한 문인 관료로, 일생 동안 정치적 부침을 겪은 인물이다. 일생동안 두 차례의 호란을 경험하였고,²⁾ 출사한 후에는 현종과 숙종대에 심화된 西人과 南人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굴곡을 겪었다. 그는 부응교·부제학·대사헌·예조참판·예조판서·이조판서·성균관대사성 등을 지내면서 남인 중진 관료로 활약하였고, 西人 金堉의 대동법을 지지하는 등 당색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의대비의 효종에 대한 복상 문제에서 불거진 예론 정쟁에서 서인 송시열과 대립하다가 실각한 윤선도의 석방을 주청하다가 파직되기도 하였고, 1680년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대대적으로 실각하게 된 庚申大黜陟 때에는 1675년에 부제학으로 재직할 때 숙종의 모후인 명성대비의 聽政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던 일³⁾이 뒤늦게 문제시되어 76세의 연로한 나이에 명천부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1687년에 83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하게 된다. 1689년 기사환국 때에 관작이 회복되었지만, 1694년 갑술환국으로 관작과 시호가 追奪되었고, 이후 또다시 복권과 추탈을 반복하다가 1795년(정조 19)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복권된다.

1) 『星湖僿說』 卷12, 「人事門·洪南坡」. “洪南坡宇遠, 爲舉子時, 與僭類習業, 時人預傳試策當出某題, 衆人皆擬爲之對, 南坡獨不肯. 及入圍, 果然, 公使不樂, 又不肯對. 一座皆曰, 君既不預, 做何害於義? 曰, 先播試題, 此豈可對也耶? 終不從. 又嘗發解, 將赴東堂, 天有雨意, 遂不入, 其自重如此.”

2) 1627년 홍우원이 23세 때에 호란이 일어나서 괴산군으로 피난 갔다가 4월에 난이 평정된 후 안성으로 돌아왔고, 1636년 32세 때 다시 호란이 일어나서 봉화현으로 피난 갔다가 1642년 38세 때 안성으로 돌아왔다. (『南坡先生年譜』 卷1, 「年譜」 참조. 홍우원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연보」를 참조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출전을 생략하도록 한다.)

3) 『南坡集』 권5에 「引家人卦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홍우원에 대한 평가는 강직하고 과감하여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절개 있는 인물이라는 것으로 대체로 요약된다. 蔡濟恭은 「南坡集序」에서 “남과 홍선생은 지극히 바르고도 강직한 기운을 타고나고 큰 물결 속 砥柱山과 같은 명망을 짊어져서 옳은 도리가 아니면 비록 萬乘의 公卿宰相이라고 하더라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의리에 맞으면 칼에 베이고 술에 삶겨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⁴⁾라고 하였고, 실록의 줄기에서는 “홍우원은 준엄하고 강직하여 과감하게 말을 잘하였는데, 효종 초기에 궁중의 일을 말하되 아주 정직한 말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傳誦하였다.”⁵⁾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록에 드러나는 홍우원과 관련한 사적과 평가에서는 당대 혼란스러운 정치 구도 속에서 논란이 될 만한 상소문을 과감하게 올려서 政論의 중심에 서게 되는 등,⁶⁾ 강직하고 직언을 잘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홍우원의 문집인 『南坡集』은 그의 사후 96년이 지나서 간행되었다. 원집 11권 6책, 부록 2권 1책으로 이루어진 그의 문집은 시와 상소문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⁷⁾ 記·說·序 등의 산문 작품은 권10의 雜著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편수는 적은 편이다.⁸⁾ 따라서 문학성을 운위할 만한

4) 『南坡集』, 「南坡集序」. “南坡洪先生稟至正純剛之氣, 負洪流砥柱之望, 非其道也, 雖萬乘之公相不屑也, 如其義也, 雖刀鋸與鼎鑊不懼也.”

5) 『肅宗補闕正誤』 卷18, 13년 7월 27일(癸卯). “宇遠峭直敢言, 孝廟初, 論宮闈事, 語多切直, 人皆傳誦.”

6) 대표적인 사건을 제시해보면, 『孝宗實錄』 권12, 5년 6월 17일에 趙淑媛의 두 아들과 昭顯世子의 아들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린 기록이 있고, 『肅宗實錄』 권3, 1년 4월 1일의 기사에서는 명성대비의 聽政의 잘못을 간하는 상소문이 실려 있다. 이 일은 모두 당대 정치적 구도에서 일대 과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7) 권1~권3이 시이고, 권4~권8이 疏이다.

8) 記와 序는 「稽古堂記」와 「藥契序」로 각각 한 편씩이고, 說은 「木根枕說」·「角說」·「老

산문 작품의 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그의 산문 작품 중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소문에서 주로 당대 정치 현안에 대하여 직접적 언급을 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의 논설류 산문 중 특히 4편의 說 작품에서는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단편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각종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 효과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표현하였다.

홍우원에 대한 연구는 김남기 교수가 그의 삶과 시세계를 연관시켜서 다룸으로써 생애와 교유양상, 문집 편찬 과정과 체재, 시세계의 양상 등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였다.⁹⁾ 그리고 우언의 인물 설정 방식을 논하면서 홍우원의 「老馬說」을 거론한 논고가 존재할 뿐,¹⁰⁾ 그의 산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홍우원이 가지는 산문 작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따져보는데 있어서 그 선행 작업으로써 가상과 허구, 우언과 상징 등의 문학적 장치가 어우러진 그의 논설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홍우원의 說 작품은 모두 4편이 존재한다. 그 4편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老馬說」에서는 늙은 말과 주인이 나누는 대화를 중심구도로 하여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인정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을 서술하였고, 「木根枕說」에서는 목침이라는 일상의 소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심원한 주제로 논의를 확대해 갔으

馬說」·「白黑難」의 4편이다.

9) 김남기, 「남파 홍우원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389~417쪽.

10) 윤승준, 「한국 우언의 인물 설정 방식과 우의」, 『국문학논집』 22,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149~179쪽.

며, 「角說」에서는 뿔이 난 말과 고양이를 소재로 하여 당대 정치 상황을 비판하였고, 「白黑難」에서는 白과 黑이 서로 벌이는 辯難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았다.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소재와 주제, 그리고 서술방식 면에 있어서 모두 주목할 만한 작품이며, 이 작품들을 수차례의 환국정치로 정치적 부침을 겪은 작자의 일생, 그리고 당대의 사회상과 연관시켜서 분석해 볼 때 작품의 면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홍우원의 4편의 논설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몇 가지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홍우원의 논설류 산문의 구조와 서술방식 등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홍우원의 산문 작가로서의 위상과 의의를 밝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친근한 소재를 통한 공감의 확대

논설류 산문은 작가가 어떠한 이치를 논증하고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는 글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나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친근한 소재를 통하여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설리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배된 작자의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논설류 산문의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송혁기 교수는 실용적 목적이나 의례적 상황에서 창작되기

마련인 여타 산문에 비해 그 창작 계기가 사적이고도 자발적인 점, 아울러 그 소재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체험이나 특정 사물·사건을 매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그 문학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¹¹⁾

홍우원의 說 작품에서 표출하는 주제는 무겁고도 진지하지만 그러한 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취한 작품의 소재는 친근하고도 가깝다. 『木根枕說』에서는 길에서 우연히 나무뿌리를 보고 가져다 목침으로 삼은 일에서 글을 시작한다.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일상적인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는 것에서 글을 시작하여 위정자가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하는 문제 에까지 그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단락별로 나누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뽑혀진 나무등걸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가져와서, 다듬어 목침으로 삼음.
- [2] 이 목침을 좋아하여 매우 가치롭게 여기게 됨.
- [3] 환경적인 요인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 나무가 결국 나에게 거두어져 목침이 된 사실에서 행복과 불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천하에는 애초에 버림받을 물건이 없다는 이치를 환기하게 됨.
- [4] 빼어난 재주를 지닌 선비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움츠려 있으면 버려진 물건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사태를 언급함.
- [5] 국가를 소유한 이가 훌륭한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할 것을 권고함.

작품의 발단은 길에서 우연히 나무등걸 하나를 발견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 나무등걸을 다듬어서 목침으로 삼는데, 빈한한 자신의 처지와

11) 송혁기, 「한문산문 '說' 體式의 문학성 再考」, 『한국어문학』 58, 한국어문학회, 2006, 233~255쪽.

딱 맞는 소박한 물건으로, 한가할 때 기대어 의지하기에 좋아서 이 물건을 몹시도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1]·[2]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크게 특이할 것 없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서술이다. 하지만 [3]단락에서는 [1]·[2]단락에서 이루어진 체험의 서술에서 분위기를 전환하여 이로 인해 계발된 이치에 대한 진술이 이어진다. [3]단락은 ‘噫!’라는 탄식으로 시작되어 행복도 불행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말하면서 논의를 연다.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길가에 버려져있던 나무등걸을 통해 표출되어 글로 표면화된 것이다. 동물에게 손상을 입거나 도끼에 베어지는 일이 없이 번성하게 자라서 울창한 나무가 되어 수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나무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작자의 이 목침은 몹시도 불행하다. 하지만 이 나무는 길가 발두둑에 자라서 동물과 도끼에게 재앙을 입었기 때문에 엷히고설킨 기이한 모양의 뿌리를 가지게 되었고, 밭을 개간하는 농부에게 뽑혀서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 작자의 눈에 띄어서 거두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작자는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다시금 환기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버려진 나무뿌리조차 이처럼 가치 있는 기물이 될 수 있는 것에서 천하에는 애초부터 버림받을 물건이 없다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1]·[2]단락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경험이 [3]단락에서 일반론으로 확대가 되었다면 [4]단락에서는 또다시 진일보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로 논의를 귀결시킨다. 특출한 재주를 지닌 선비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현실세태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단락에서는 직접적으로 군주와 재상으로 그 주체를 한정하여 숨겨진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해야만 함을 역설하였다.

‘버려진 나무’,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들어진 ‘목침’이라는 이 작품의 소재가 자연스럽게 인재등용의 문제로 전환되어 독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피기 위하여 작품 일부를 제시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서두 부분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길가 밭두둑에서 자라난 나무가 동물에게 뜯어 먹히고 도끼에 베이는 재앙을 입었다. 그래서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뿌리는 땅 속에서 얽히고 서렸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더욱 울퉁불퉁 굵어졌다. 그 밭두둑을 개간한 농부가 파서 뽑아 길에 던져 버렸다. 나는 우연히 발견하여 특이하게 생각하며 “이는 간직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끌고 왔다. 칼로 다듬어서 좀먹은 부분은 도려내고 썩은 부분을 깎아내어 목침으로 삼았다. 물러나 앉아서 이 목침을 바라보니 버티고 있는 것은 발 같고, 끌린 것은 꼬리 같고, 쳐들고 있는 것은 머리 같고, 솟은 것은 뿔 같고, 높으면서도 평평한 것은 등 같아 울퉁불퉁 노쇠한 것이 하나의 괴이한 물건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이는 山家의 기이한 노리개가 아닌가?”라고 하였다.

[2] 매번 빈한한 내 집의 손님이 떠나서 초당이 낮에 고요할 적에 책을 읽고 시를 읊조리다가 정신과 기력이 조금 권태로워지면 혹 기대어 의지하기도 하고 혹 베고 눕기도 한다. 그러면 너울너울 호랑나비가 南柯와 華胥의 사이에 자적하는 듯하였다. 나는 이 목침을 몹시도 사랑하여 세간에 호박으로 꾸미고 무늬를 수놓은 것이라 해도 바꾸고 싶지가 않았다.¹²⁾

나무등걸이 울퉁불퉁 얽히고설킨 모습을 하고 길가에 뽑혀서 작자의

12) 洪宇遠, 『南坡先生文集』卷10, 雜著·說, 「木根枕說」. “木之生於道傍田畔者, 厄於牛羊之牧, 斧斤之尋也. 其枝柯不能條達於外, 而根鬱結盤屈於地中, 歲久而益擁腫輪困焉. 田夫之闢其疇者, 掘而拔之, 擲棄之途中焉. 余偶遇而異之曰, ‘此可居’ 挈之歸. 加以刀削, 剔其蠹刮其朽, 而以爲枕焉. 却坐而視之, 撐者如足, 曳者如尾, 昂然者若頭, 巖然者若角, 隆然而平者若背, 碗疊龍鍾焉一怪物也. 余笑曰, ‘此非山家之奇玩耶?’ 每柴扉客去, 草堂晝靜, 讀書哦詩, 神氣稍倦, 或欹而凭, 或支而臥, 栩栩然蝴蝶, 自適於南柯華胥之間也. 余甚愛惜之, 雖世之以琥珀飾而文繡被之者, 亦不願易也.”

눈에 띄게 된 경위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나무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길가 밭두둑에게 자랐기 때문에 소나 양에게 뜯어 먹히고 도끼에 베이는 액운을 입었다. 그래서 자연히 변성한 가지와 뻣뻣한 잎을 가지지 못하고 뿌리 모양은 울퉁불퉁하게 구부러져 버렸다. 나무가 처한 좋지 못한 환경이 곧 나무의 외형을 기이하게 만들었고, 이 기이한 외형으로 인해서 결국은 작자의 눈에 들어서 취해지게 된다. 나무등걸을 가져와서 칼로 다듬어서 좀먹고 썩은 부분을 정리하여 목침으로 삼게 되는데, 이는 곧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보잘것없고 더러운 나무등걸이, 작자가 그 가치를 알아봐줌으로 인해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기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제 좀먹고 썩은 나무등걸은 더 이상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작자의 손길을 거쳐서 작자의 애호를 받는 목침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어서 이 목침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는데, 버팀목과 같은 발·길게 늘어진 꼬리·높이 쳐들고 있는 머리·우뚝 솟은 뿔 등의 묘사에서 마치 생명체를 대하는 듯 섬세한 눈길이 느껴진다.

이 소박한 목침은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작자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 손님이 떠나가고 고요해진 초당에서 독서하다가 권태로워지면 이 목침에 기대기도 하고, 배고 눕기도 한다. 이 때 느껴지는 편안함을 작자는 莊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닌 물아일체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목침을 몹시도 사랑하게 되어,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름답게 수가 놓인 진귀한 베개라고 하더라도 이 목침을 대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여기까지가 목침과 관련한 작자의 경험의 진술이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별다른 것 없는 경험과 소회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작자가 이 작품의 제목을 ‘說’로 명명한 만큼 이러한 경험을 소개하는 데는 모종의

의도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 의도, 즉 작자가 진정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계속된다. 단락[3]에서는 행복과 불행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세상에는 가치 없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며, 단락[4]와 [5]에서는 인재등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단락[3]은 위에서 이루어진 단락별 내용소개로 대신하고, 이어지는 [4]·[5]의 번역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4] 세상의 빼어나고 특출한 선비 중에 도를 품고 재주를 안고서 알려지지 못한 이를 어찌 한정하겠는가? 몹시도 곤궁하고 불우함을 당하였을 때 빈천함이 흘러들고 우환이 몰려오면 용렬하고 비루한 사람들도 모두 업신여기고 모욕을 한다. 이러한 까닭에 꺾이고 숨어서 그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서 용이 서린 듯 자벌레가 굽힌 듯 깊은 물굽이에 몸을 숨긴다. 그래서 재주가 제때에 드러나지 않고 도가 세상에 행해지지 않아서 빼어나고 특출한 기운이 내면에 막히고 쌓인다. 혹 원망하고 불평하는 격정에 말미암아 때때로 밖으로 발로되는 것이 있더라도 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버려진 물건이라 여기고 내버려둔다.

[5] 아! 밝은 군주와 어진 재상이 알아보아서 이끌어 등용해주지 않는다면 길가의 버려진 나무처럼 되지 않을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만물은 사람과 더불어 그 이치가 하나이다. 국가를 소유한 이가 진실로 나의 이 「목근침설」을 얻어서 간직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편안히 베개 베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¹³⁾

길가에 버려져있던 나무등걸이 작자의 알아줌을 입어서 소중한 목침으로 재탄생한 경험을 통하여 천하에는 애초에 버림받을 물건이 없이 만물은 모두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작품

13) 洪宇遠, 『南坡先生文集』 卷10, 雜著·說, 「木根枕說」. “世之卓詭瑰奇之士, 懷道抱才而不見知者, 何限? 當其厄窮坎壈之甚也, 貧賤汨之, 憂患萃之, 庸人鄙夫皆得以轢蹙而折辱之. 是以, 摧藏韜匿, 蟄其頭角, 龍蟠蠖屈, 潛深伏隩. 才無所著於時, 道無以行乎世, 而其瑰奇卓詭之氣, 壅鬱蓄積於中. 或因怨懟不平之激, 而時有所發露於外者焉, 彼不知者, 以爲棄物而置之. 嗚呼! 不有明君良相遇而識之, 引以登之, 則幾何其不爲途中之棄木也? 夫物之與人, 其理一也. 有國家者, 苟得吾是說而存之, 則生民之奠枕, 其庶矣乎.”

의 후반부에서는 재주를 지녔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선비가 위정자의 알아줌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그 가치를 펼칠 수 있음에까지 논의를 확대하였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곤궁하고 불우한 현실에 처하고 우환이 겹치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모욕을 한다. 이는 나무등걸이 동물에게 뜯어 먹히고 도끼에 베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일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나무등걸은 곧 재주를 지녔지만 불우한 처지에 있으면서 알려지지 못한 선비와 대응된다. 불우한 선비의 내면의 불평한 기운이 밖으로 발로되는 것은 곧 얽히고 설켜 울퉁불퉁 굽혀진 나무뿌리의 형상과 대응된다. 작자가 기이한 형태의 나무등걸을 취하여 목침으로 삼은 일은 곧 위정자가 잠재력을 지닌 인물을 알아보고 등용하는 일과 대응된다. 작자에 의해 고유의 가치를 되찾은 목침은 곧 적재적소에 등용되어 포부를 펼치는 선비와 대응된다.

밝은 군주와 어진 재상이 알아보고 등용해야지만 훌륭한 선비는 길가의 버려진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는 길가의 버려진 나무를 버려진 선비로 곧바로 치환시킨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說’의 주된 대상을 ‘有國家者’, 즉 국왕으로 한정시켰다. 국가를 소유한 이가 이 작품을 읽고 마음에 잘 보존한다면 국가를 잘 다스리게 되어 백성들이 근심 없이 편안해 지리라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을 ‘說’로 명명한 것, 개인의 특수한 체험을 일반론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자들은 이미 눈치를 채었겠지만, 마지막 단락인 [5]의 내용을 통하여 이 작품이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겪은 체험의 소개를 위해서 지어진 글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이 작품은 인재를 등용하는 위정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무겁고도 진지한 주제를 풀어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 의도를 작품 前面에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우회시켰다. 이러한 작문의 단계 없이 독자가 단락[3]~[5]의 내용을 접하였다면, 획득할 수 있는 독자의 공감은 사뭇 그 정도의 차이가 클 것이다. 작자는 [1]과 [2]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경험과 그 사회의 진술을 통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이 글이 논설류 산문으로서 가지는 목적, 즉 독자를 설득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졌다. 설사 [1]·[2]에서 소개하고 있는 체험이 허구라고 하더라도, 혹은 제3자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1]·[2]의 서술로 인해 작품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근침설」뿐만이 아니라 홍우원의 여타 논설류 작품 역시 작품의 주제를 문면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도 흥미로운 소재를 동원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설리적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老馬說」에서는 늙은 말과 주인의 대화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필요할 때는 취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인정세태를 비판하였다. ‘주인에게 버려지는 늙은 말’이라는 낯설 것 없는 소재를 통하여 비정한 인정세태를 어렵지 않게 이끌어내어 현실을 비판 풍자하였다.

「角說」은 뿔이 난 말과 고양이라는 기형의 동물을 소재로 하였다. 아마도 당시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러한 변종의 동물이 출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¹⁴⁾ 이 소재를 통하여 변고와 기이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

14) 洪宇遠, 『南坡先生文集』卷10, 雜著·說, 「角說」. “지금 中原의 말과 箕城(평양의 옛 이름)의 고양이는 그 뿔이 우뚝하니 이는 또한 어찌하여 생겨난 것인가? 말과 고양이는 하늘이 이빨을 부여하였는데 지금 다시 뿔을 더해주니, 장차 하늘이 만물에 형체를 부여해 줌에 때로 어그러짐이 있는 것인가? 이빨은 깨물 수 있고 뿔은 들이받을 수 있으니, 그 말과 고양이는 깨물 수 있는 이빨이 있는데다가 들이받을

세상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것을 제언하였다. 홍우원은 당시를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¹⁵⁾ 이 글에서 기형의 말과 고양이는 곧 괴이한 변고가 많이 발생하는 당시 사회를 대변하는 하나의 표지로써 기능한다.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글에 곧장 드러내지 않고 뿔이 난 말과 고양이라는 독자의 주의를 끌만한 소재를 우선 전면에서 내세워서 서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작자의 논리에 젖어들게 하고 있다.

「白黑難」은 ‘백’과 ‘흑’이 나누는 대화를 소재로 하였다. 백과 흑은 선과 악을 대변하는 색깔로, 그 자체로 일정한 전형성을 지닌다. 이 작품에서 백은, 흑이 스스로를 옹호하는 논리에 대응하지 못하고 설복당해 버린다. 이를 통하여 선과 악의 가치관이 전도된 당시 사회를 비판·풍자하고 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각각 백과 흑으로 상징화시켜서 접근함으로써 가볍게 접근하기 힘든 심각한 주제를 효과적이면서도 흥미롭게 드러내었다.

수 있는 뿔까지 있다. 그러하니 조물주는 말과 고양이에 대하여 장차 사사롭게 중시하는 점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今者中原之馬, 箕城之貓, 其角巖然也, 此又何以生焉? 夫馬也貓也, 乃天以齒與之也, 而今復益之以角, 將天之所以賦形於物者, 有時而舛乎? 夫齒可以嚙也, 角可以觸也, 之馬也之貓也, 既有齒以嚙之, 又有角以觸之. 則將造物者之於馬若貓, 私有所厚而然乎哉?)”

- 15) 洪宇遠, 『南坡先生文集』卷10, 雜著·說, 「角說」. “아! 하늘은 원기를 만물에 퍼뜨려서 형체를 이룬다. 이러한 까닭에 태화가 유행하면 만물이 모두 형통하여 각각 그 본성을 바르게 하여 경사와 상서가 이에 일어나게 되고, 악기가 짝 막히면 미물들이 모두 본성을 잃어서 불길함과 괴이함이 이에 일어나게 되니, 이는 필연의 이치이다. 아! 지금 세상에는 어찌도 이리 변고와 기이함이 많은가? 慶雲과 景星을 내가 보지 못하였고 河圖와 鳳鳥를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萬日이 부릅뜨고 바라보며 놀라고 괴이해 하는 것은 오직 말과 고양이의 뿔이니, 어찌 몹시도 한심할 만하지 않은가?(噫! 天以一氣播於萬類而以其形也. 是以, 太和流行, 則品物咸亨, 各正其性命, 而禎祥於是乎興焉, 妖沴壅闕, 則喘奕肖翹莫不失性, 而孽怪於是乎作焉, 此必然之理也. 噫! 今之世, 何其多變異也耶? 慶雲景星, 我未之見也, 河圖鳳鳥, 我未之觀也, 萬日之所睚睚驚怪者, 惟是馬與貓之角也, 豈不大可寒心乎哉?)”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홍우원의 네 편의 설 작품에서는 각각의 주제를 표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자의 육성을 문면에 배치하여 추상적이면서도 고차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친근한 소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주제에 접근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Ⅲ. 문답의 서술방식을 통한 논리성의 강화

「老馬說」과 「白黑難」에서는 각각 늙은 말과 주인, 백색과 흑색이 등장하여, 이들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형식의 산문을 문답식 산문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문답식 산문이란 작자의 의론을 효과적으로 펼쳐내기 위한 가설적 질문과 답변이 작품의 중심 구도를 이루는 산문을 말한다.¹⁶⁾ 본 장에서는 홍우원의 논설류 작품 중 「노마설」과 「백흑난」을 제시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 작품이 문답의 서술 구조를 설정하여 획득하는 효과에 대해서 고구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노마설」의 열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인이 늙은 말에게 방출할 뜻을 말함.
- [2] 지난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주인에게 늙은 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힘.
- [3] 주인이 늙은 말의 논리에 수긍하고 말을 방출할 뜻을 접음.

16) 문답식 산문의 기원과 발전, 형식과 전개양상에 대한 논의는 줄고, 「문답식 한문 산문에 대한 연구」(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에서 다루었다.

문답식 산문에서 등장인물 간에 묻고 답하는 과정은 작자의 의도에 의해서 설정된 가설적 상황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늙은 말이 등장하여 주인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이 꾸며진 상황이라는 것은 더욱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글은 주인의 발언과 이에 대한 말의 변론, 그리고 마지막의 주인의 수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답식 산문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¹⁷⁾

[1]에서 주인은, 늙어서 이제 쓸모가 없어진 말을 방출할 뜻을 밝힌다. 그러자 [2]에서 말은 그동안의 자신의 노고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은 주인의 대우에 대해서 따지게 된다. 이 작품에서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등장인물은 늙은 말이며, 따라서 늙은 말의 발언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자가 이 글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주지 역시 [2]의 늙은 말의 발언에 집중되어 있다. [2]의 늙은 말의 발언-곧 작자의 목소리-을 모두 듣고 난 주인이 [3]에서 원래의 생각을 접고 늙은 말을 끝까지 길러줄 마음을 먹게 되는 것으로 작품이 종료된다. 그렇다면 [1]단락은 작품의 주지 전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2] 단락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며, [3]단락은 [2]단락의 논리를 강화하여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실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편폭이 길기에 중간 중간 생략을 하면서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崇禎 9년 4월 어느 날, 주인이 노비를 시켜서 말구유 아래 엎드려 있는 늙은 말을 끌어내게 하고는 말하였다.

17) 줄고(2013)의 3장에서 문답식 산문의 형식을 ①도입부의 상황 설정, ②전개부의 문답 방식 ③결말부의 질문자 반응의 세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안타깝구나, 말아! 네 나이가 이제 많고 네 힘이 약해졌구나. 너를 빨리 달리게 하려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너를 높이 뛰게 하려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안다. …… 말아! 장차 너를 어디에 쓸 것인가. 백정에게 주어 잡게 하는 것은 내 너에게 차마 할 수 없고 저자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어찌 취하겠느냐. 안타깝구나, 말아! 내 장차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서 네가 가고 싶은 데로 풀어줄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 대해서 쓸 것이 이제 없구나.”

[2] 이 때 말은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듯, 고개를 들고 하소연하는 듯 오랫동안 몸을 구부리고 있다가 입으로는 말을 못하였지만 가슴으로 대답하였다.

“아! 진실로 주인의 말대로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또한 어질지 못하군요. 옛날에 내 나이가 아직 젊을 때 하루에 백리를 달렸으니 나는 건강하게 나아갔고, 한 번 물건을 실으면 몇 석을 졌으니 나의 힘은 강하였습니다. 주인의 가난은 오직 내가 아는 것이니, 사방이 짙으로 지어진 집에서 적막하게 식량이 떨어져서 동이에 한 말의 곡식도 없고 상자에 한 자의 비단도 없어서 아내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아이들은 밥을 찾았지만 아침에는 된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빌어서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남북으로 주인의 명을 따라서 멀게는 몇 천 리, 가깝게는 몇 십 몇 백리를 내달리기도 하고 짐을 실어 옮기기도 하여 이제껏 하루라도 감히 편안하게 지내보지 못하였으니, 나의 수고로움이 크다고 할 만합니다. ……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 노고가 큰 사람은 상을 반드시 후하게 주고 공이 높은 사람은 작록을 반드시 무겁게 주었으니 이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권면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지금 주인은 그렇지 않아서 내 수고로움이 이처럼 큰데도 나를 형편없이 먹여 주고 내 공이 저처럼 높은데도 나를 박하게 길러주어, 한 여물의 짚과 한 사발의 물에 내 배가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 젊을 적에 힘을 다 쓰게 하고 늙어서 버려 버리니, 이는 참으로 仁人과 군자가 하지 못할 행동인데, 주인이 차마 그 짓을 하니, 아! 어질지 못함이 심하군요.

…… 힘을 헤아려 일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킨다면 내 비록 늙었지만 오히려 떨쳐 일어나 길이 올 수 있으니 주인을 위해 일할 대비를 하면서 여생을 마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끝내 버림을 당하게

되었네요. 나의 발굽은 서리눈을 밝기에 족하고 털은 찬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 풀 먹고 물 마시며 애오라지 스스로 길러서 내 천명을 온전히 하여 나의 참 본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뭐 아플 것 있겠습니까? 감히 작별인사를 드립니다.”

[3] 그러자 주인이 놀라서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말이 무슨 죄인가. 옛날에齊나라 桓公이 길을 잃었을 때, 管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하였다. 관자는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이용한 까닭에 군주를 도와서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으니, 이 일로 본다면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¹⁸⁾

[1] 단락에서 주인은 말구유 아래 엎드려 있던 늙은 말을 노비를 시켜서 끌어내게 하고는 재갈과 굴레를 풀어준 후, 가고 싶은 데로 풀어주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말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으므로

18) 洪宇遠, 『南坡先生文集』卷10, 雜著·說, 「老馬說」. “崇禎九年四月日, 主人使奴雲牽出伏櫪之下老馬而告之曰, ‘嗟乎鬢乎! 汝之齒今長矣, 汝之力其衰矣. 將以汝馳乎騁乎, 則吾知汝不能也, 將以汝躍乎踔乎, 則吾知汝不能也. …… 鬢乎! 將以汝奚用也? 將畀之庖丁而解之乎, 則吾於汝不忍焉, 將適諸城市而貨之乎, 則人於汝奚取焉? 嗟乎鬢乎! 吾將脫汝之銜勒, 解汝之羈絆, 而放汝任汝所之乎, 行矣哉, 余無所取用焉.’ 於是焉, 馬乃俯耳若聽, 仰首若訴, 踟躕良久, 口不能言, 而以臆對曰, ‘噫! 誠如主人之言. 然主人亦不仁者矣. 昔我之年尚壯也, 一日焉百里趨之, 我之行非不健矣, 一載焉數石任之, 我之力非不強矣. 主人之貧, 惟我所知, 蓬蒿四壁, 冷落懸磬, 盍無斗粟之儲, 篋無尺帛之藏, 妻瘦啼飢, 群雛索飯, 朝饘夕粥, 乞貸取繼. 當是之時, 我實竭力, 東西惟主人之命, 南北亦惟主人之命, 遠者幾千里, 近者數百里, 載馳載奔, 以負以輸, 未嘗敢一日而寧居, 我之勞可謂大矣. …… 夫國君之使臣也, 勞大者其賞必厚, 功高者其祿必重, 此上之所以勸乎下, 而下之所以能自盡於上也. 今主人不然也, 我之勞大若此, 而所以食我者甚廉, 我之功高如彼, 而所以畜我者甚薄, 一莖藁一盂水, 而吾之腹未嘗果然也. …… 夫少盡其力而老棄之, 此固仁人君子之所不爲也, 而主人忍之, 嗟乎其亦不仁甚矣. …… 量力而任之, 度才而使之, 則雖其老矣, 尙能振迅長鳴, 爲主人備驅策, 以終餘年, 是余之大幸也. 終見棄而已焉, 則我蹄足以踐霜雪, 毛可以禦風寒, 吃草飲水, 聊以自牧, 以全吾之天而反吾之眞性焉, 於我何傷哉? 敢辭.’ 主人於是無然而歎曰, ‘是余之過也, 馬則何罪焉? 昔者齊桓公行而失道, 管子請釋老馬而隨之, 管子惟不棄老馬而用之, 是以能相其君而霸天下. 由是觀之, 則老馬庸可忽乎?’”

빨리 달릴 수도 높이 뛸 수도 없다. 따라서 수레를 뛸 수도 무거운 짐을 실어 옮길 수도 없으니 주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쓸모는 없이 식량만 축내는 존재에 불과해져 버렸다. 하지만 백정에게 잡게 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재갈과 굴레를 벗겨서 말을 자유롭게 풀어주어 자신과 말의 인연을 이제 끊으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 [2]단락에서 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작품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말은 자신의 현재 처지와 관련한 주인의 언급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주인의 처사가 어질지 못하다고 하면서 발언의 시작에서부터 주인을 비난하고 나선다. 그리고 나서 과거 자신의 노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대우가 그에 걸맞지 못했음을 말한다. 가난하여 식구들이 굶주림에 울던 시절에 말은 하루에 몇 백리를 달릴 만큼, 한 번에 몇 석의 물건을 실을 만큼 기운이 좋았다. 따라서 있는 힘을 다 바쳐서 주인의 명령을 따랐기에 하루도 편하게 지내 본 적이 없었다. 말의 이러한 노고가 있었기에 어려웠던 시절, 주인과 그 식구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공로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맞는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항상 수고롭게 일을 시키면서도 배불리 먹여주지도,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달프고 지쳐서 기력이 떨어지게 된 것은 단지 나이가 들게 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방법이 옳지 못한 것 역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말이 강건하여 쓸모가 있던 때에는 기력이 소진하도록 이용하기만 하고,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자 버리려고 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할 행동이라면서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말은 자신의 노고를 자세히 언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의 뜻을 전달하고 난 후, 주인이 생각을 선회하여 자신을 다시 거두어 줄 것을 바라는 마지막 희망을 내비친다. 주인이 지금과 같이 앞으로 자신을 거두어 길러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곡식과 좋은 음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림과 갈증을 풀어줄 정도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노쇠하여 기력이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힘과 재주를 헤아려서 일을 시켜준다면 그에 맞는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인에게 끝내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내었다.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될 자신의 처지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작별인사를 함으로써 발언을 마무리하고 있다.

말의 심정을 모두 듣고 난 주인은 그제서야 지난 행동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管子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늙은 말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던 고사를 인용하여, 젊고 건장한 말 뿐만이 아니라 늙고 힘없는 말 역시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는 문답식 산문에서 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발언으로,¹⁹⁾ 이를 통하여 작품의 주된 발화자인 늙은 말의 발언에 권위를 실어줌으로써 글 전체를 안정감 있게 끝맺음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말이라는 인간과 친숙한 동물을 등장시킨 후, 말이 인간에게 자신의 입장을 토로한다는 설정 하에 글을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우선 독자의 흥미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인정사정

19) 이는 문답식 산문의 형식 중에서 '결말부의 질문자 반응'에 해당한다. 문답식 산문에서 일반적으로 질문자는 작자의 주지 전달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질문자가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을 하는 것이 문답식 산문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없이 부리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려버리는 각박한 인간 세태를 동물의 입을 통하여 비판하는데, 주인을 평생 동안 기른 동물에게 비난을 받는 한없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극적 효과를 배가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하여,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정세태에 대하여 선명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늙은 말과 주인의 관계를 老臣下와 군주와의 관계로 치환시켜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늙은 말은 곧 평생을 국가와 군주를 위하여 노력한 늙은 신하인 작자를 상징하며, 주인은 곧 늙은 자신을 重用하지 않으려는 군주를 상징하게 된다. 작품에 창작 동기에 대한 별다른 附記가 없으므로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작품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白黑難」에서 펼쳐지는 문답의 서술방식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열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백이 흑에게 검어서 더럽다고 비난함.
- [2] 흑은 백에게 흰 것이 더 더럽다고 응수함.
- [3] 백이 흑에게 자신을 더럽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음.
- [4] 흰 것이 더러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흑이 답변함.
- [5] 백이 흑에게 설복 당함.

백과 흑이 등장하여 서로를 힐난한다는 설정 자체가 흥미롭다. 일반인의 통념 가운데 백과 흑이 상징하는 것은 비교적 선명하다. 백은 깨끗함, 고결함, 청렴함 등을 의미하고 흑은 더러움, 혼탁함, 부패 등을 의미하는 색깔로 각각 선악을 대변한다.

이 작품의 서두는 [1]에서 백이 흑의 더러움을 비난하는 것에서 시작

한다. 그러자 [2]에서 흑은 새하얀 백이 오히려 분토보다도 더 더럽다고 응수한다. 그러자 [3]에서는 화가 난 백이 흑에게 자신을 분토 취급하면서 더럽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다. [4]에서는 이에 대한 흑의 답변이 펼쳐지는데, 이 글에서 분량상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락이다. 그리고 [5]에서는 흑의 장황한 언설을 듣고 난 백이 설복을 당하는 것으로 글이 마무리된다.

단락[1]과 단락[2]에서 이루어지는 백과 흑이 서로 간에 하는 공격은 단락[3]의 백의 질문을 이끌어내고, 단락[3]의 백의 질문은 이 글의 핵심 단락인 단락[4]의 흑의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따라서 단락[1]~[3]은 모두 단락[4]의 내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단락[5]는 단락[4]의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작자가 펼쳐내고자 하는 의론은 단락[4]를 통하여 주로 드러나고, 나머지 단락은 단락[4]에서 글의 주지가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만약 이 글이 작자의 직설적 서술로 작성이 되었다면 선과 악의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이 글의 주지가 이처럼 극적이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백과 흑이 주고받는 힐난을 통하여 ‘흰 것은 깨끗하고 검은 것은 더럽다’라는 통념을 깨트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백의 질문에 의해 촉발된 흑의 답변은 이 글 전체를 지탱하면서 글의 주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지금은 흑의 시대이므로 더 이상 대응할 말이 없다는 [5]단락의 백의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기존에 장황하게 언급된 흑의 논리는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할 것도 없이 흑의 논리가 백에게 용납이 됨으로써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이 냉소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러한 점이 모두 이 글이 문답의 서술방식으로 작성됨으로써 얻어진 효과라고 판단된다.

IV. 우언의 서술방식을 통한 현실 비판

홍우원의 설 작품은 모두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당대 현실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거나, 작자의 목소리를 글의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 구체적 사건이나 체험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여기에 비유와 기탁을 하거나 가상의 등장인물을 출현시켜 이들의 입을 통하여 주제를 드러나게 하였다. 홍우원의 설 작품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동원된 이러한 형상화 기법을 우언의 서술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언’이란 작가의 생각을 寓意的으로 표현한 형식이다. 우언은 서양의 ‘알레고리’라는 개념과 동일시될 수 있다. 알레고리는 ‘확장된 비유’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이야기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동시에, 그 이야기 배후에는 정신적·도덕적·역사적 의미가 전개되는 뚜렷한 이중 구조를 가진 작품이다.²⁰⁾ 동양의 기록 중에서 우언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莊子』이다. 『장자』 「寓言」편에서는 “우언은 열 중 아홉을 차지하는데, 밖의 사물을 빌어 논한 것이다. 친아버지는 자신의 자식을 위해 중매를 하지 못한다. 친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것은 친아버지가 아닌 이가 칭찬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²¹⁾ 라고 하였다. 이렇듯 우언은 외부의 사물에 작가의 관념과 주제 의식을 기탁하여 표현하는 서술기법을 의미한다.²²⁾ 우언은 표면적 줄거리와 이

20)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1976.

21) 『莊子』雜篇, 「寓言」, “寓言十九, 藉外論之. 親父不爲其子媒, 親父譽之, 不若非其父者也.”

22) 우언을 수사적 차원의 문제로 볼 것인가, 하나의 양식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면적 주제라는 명확한 이중 구조를 지니는데, 이러한 형식은 작자의 생각을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문학적 장치로 작용하기도 하며, 작가의 眞意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유용하게 채택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백흑난」에서는 선과 악을 상징하는 색깔인 백과 흑이 서로 문답을 벌이는 상황을 설정하여 백이 흑에게 오히려 설복을 당하는 결과를 통하여 당대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작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

[1] 백이 흑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 어둑어둑 검은가? 그대는 어찌 스스로 씻지를 않는가? 나는 새하야니 그대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게. 나는 그대가 나를 더럽힐까 두렵네.”

[2] 흑이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다.

“너는 내가 너를 더럽힐까 두려운가? 너는 비록 스스로 새하얏다고 여기지만 나는 새하얀 것은 더러운 분토보다도 더 더럽다고 보네.”

[3] 백이 발끈하면서 말하였다.

“너는 어찌 나를 분토로 여기는가? 나는 밝디 밝게 장강과 한수에서 씻고 가을햇살에 몸을 말렸다. 검게 하는 염색도 나의 하자가 되지 못하고 먼지의 혼탁함도 나의 흐림이 되지 못한다. 천하의 깨끗하고 맑은 것 중에 나 보나 나온 것이 없는데 너는 어찌 나를 분토 취급을 하는가?”

[4] 흑이 말하였다.

“너는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 너에게 말해주겠다. 지금 너는 스스로 깨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다. 양승민은 『우연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학고방, 2008)에서 ‘수사적 형상화 방식’으로서의 우연과 ‘양식’으로서의 우연을 구분지어서 범주 설정을 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연을, 논설류라는 갈래에서 표현되는 수사적 형상화 방식으로서의 서술기법으로 접근하였다.

끗하게 여기고 나를 더럽게 여기지만, 나는 스스로 더럽게 여기지 않고 너를 깨끗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는 과연 깨끗한가? 나는 과연 더러운가? 나는 과연 깨끗한가? 너는 과연 더러운가? 이는 알 수가 없다. 내가 다투는데 너도 역시 다투고 네가 따지는데 나 역시 따진다. 나와 네가 다투고 너와 내가 따지니 이는 결단할 수가 없다. 청컨대 너와 함께 세상에 징험을 해서 말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지금 천하의 사람 중에 너를 좋아하는 이가 있는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이가 있는가? 없다. 어째서인가? 사람이 젊을 적, 그 머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나이고 귀밑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이이다. 사람이 청춘을 머무르게 하고 젊은 얼굴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첫째도 나이고 둘째도 나이이다.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 너는 일찍이 넉넉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날의 많던 머리숱이 성성하게 변하고 지난날 검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니, 이때가 되어 사람들이 어찌 청춘을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젊은 얼굴을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모두 거울을 잡고 놀라서 족집게를 당겨서 흰 머리를 뽑고 탄식하고 슬피하여 내가 머무를 수 없는 것을 한스러워하고 네가 떠날 수 없는 것을 괴로워한다. 이는 새하얀 것이 사람의 기쁨이 된 적이 없고 항상 미움이 되어 온 것이며, 네가 아름다움이 된 적 없고 항상 하자가 되어 온 것이니, 너의 깨끗함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광채를 숨기고 세속과 어울리는 이가 용납되기를 구하는 방도는 결백하고 깨끗함인데 이렇게 하고서 세상에 능히 입신한 이를 나는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伯夷의 청렴함으로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屈原의 고결함으로 멍라강에 빠져죽었다. 趙孟의 존귀함과 季氏의 부유함으로 사치함과 욕망을 다하고 뜻을 펼치고 안락하였으니, 이 몇 사람 중 누가 영화롭고 누가 고달팠으며,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는가? 아! 三閭大夫(굴원)와 孤竹君(백이)의 화는 네가 재앙을 만든 것 때문에 일어났고, 계씨와 조맹이 공명과 부귀를 누리고 당세에 영화로웠던 것은 어찌 내가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로 보건대 너는 세상이 버린 존재이고 나는 사람들이 좇는 존재이다. 세상이 버린 존재는 천하고 사람들이 좇는 존재는 귀하다. 나는 알지 못하겠으니, 귀한 것이 고결한가? 천한 것이 고결한가? 귀한 것이 더러운가? 천한 것이 더러운가? 천하가 모두 더러워하는 것은 분토만한 것이 없으니, 더러

운 분토는 사람들이 모두 침을 빨고 더러워하면서 지나간다. 지금 세상에서 너를 몹시도 천하게 여기니, 지나가면서 침을 빨고 더러워하는 것이 어찌 다만 분토 취급을 하는 것에 그치겠는가? 너는 장차 스스로 치욕스러워할 겨를도 없을 것인데 어느 겨를에 나를 더럽다고 하는가? 나를 더럽히지 말도록 너는 떠나가거라.”

[5] 백이 이에 멍하게 실의하여 오랫동안 묵묵히 있다가, “아! 옛날에 장의가 소진에게 ‘소군의 세상에 내가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지금은 진실로 너의 시대이니 내가 오히려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라 하고는 마침내 더 이상 힐난하지 못하였다.²³⁾

백이 흑에게 검은 점을 비난하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흑이 찌지

23) 洪字遠, 『南坡先生文集』 卷10, 雜著·說, 『白黑難』. “白問乎黑曰, ‘子何闇然而黝然乎? 子奚不自疏濯也? 余則皎皎焉矣, 子無庸近我爲也. 余恐子之澠乎我也.’ 黑啞然笑曰, ‘若恐我澠若乎? 若雖自以爲皎皎乎, 吾視皎皎者, 不啻若糞壤之穢矣.’ 白忿然曰, ‘汝奚糞壤我哉? 吾皜皜乎濯江漢而曝秋陽也. 緇涅之染, 不能爲吾之累, 埃壘之濁, 不能爲吾之溷. 凡天下之潔且清者, 莫我尙也, 汝奚糞壤我哉?’ 黑曰, ‘若毋嘵嘵, 吾且語若. 今夫若自以爲潔而謂我污也, 我自謂不污而不若潔也. 若果潔也耶? 我果污也耶? 我果潔也耶? 若果污也耶? 是未可知也. 我爭而若亦爭, 若辯而我亦辯. 以我爭若, 以若辯我, 是未可決也. 請與若徵諸世而言之可乎? 今夫天下之人, 其有喜若者乎? 無也. 其有惡我者乎? 無也. 何者? 人之少壯之時, 能鬢其髮者, 我也, 能玄其鬢者, 我也, 人之所以能駐青春而留朱顏者, 一則我也, 二則我也. 及夫年光荏苒, 汝不曾饒, 向之鬢者, 化之爲星星, 向之玄者, 變之爲皤皤, 當是之時, 人安得駐其青春乎, 又安得留其朱顏乎? 是以, 人莫不攬鏡而驚, 攝鑷而拔, 嗟嗟戚戚, 恨我之不可留, 而苦若之不可離也. 是則皎皎者未嘗爲人之喜, 而未嘗不爲人之惡也, 未始爲若之美, 而未始不爲若之累也, 若之潔, 果奚有焉? 且夫沈光晦彩, 混世諧俗者, 取容之道也, 察察昭昭, 而能立於世者, 我未之見也. 是以, 伯夷之清而餓死首陽, 靈均之潔而沈於汨羅. 趙孟之貴, 季氏之富, 窮奢極欲, 肆志寵樂, 是數子者, 孰華孰瘁, 孰得孰失? 噫! 三閭孤竹之禍, 職由於若之作孽, 而季孟之功名富貴烜赫當世者, 庸詎非我之爲哉? …… 由是觀之, 若, 世之所棄也, 我, 人之所趨也. 世之所棄者賤也, 人之所趨者貴也. 余未知貴者爲潔乎? 賤者爲潔乎? 貴者爲污乎? 賤者爲污乎? 夫天下之所共污者, 莫糞壤若也, 糞壤之穢, 人皆唾鄙而過. 今世之賤若甚矣, 其所以過而唾鄙之者, 豈特糞壤而已哉? 若將自污之不暇, 其奚暇污我哉? 若去矣, 毋污我也. 白於是焉慙然自失, 默然良久曰, ‘噫! 昔張儀謂蘇秦曰, 蘇君之世, 儀何敢言. 今日固若之時也, 我尙何敢言?’ 遂不能難.”

않은 듯 어둑하게 검은 것에 반해서 백은 깨끗하고 새하얗다. 흑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본질은 바로 검은 것이고 백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본질은 바로 흰 것이다. 각각의 이름이 그 본질을 드러내는데, 백이 흑의 검은 점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흑이라는 존재의 가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 [1]에서 백은 흑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더럽힐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흑을 도발한다. 하지만 [2]에서 흑은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에 응한다. 백이 새하얀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새하얀 백이 오히려 糞土보다도 더 더럽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토는 人糞 등의 거름을 섞은 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백은 흑의 발언에 대해 발끈 화를 내면서 자신을 더러운 분토 취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흑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3]에서 하는 이 질문은, 작품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주제를 전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4]의 흑의 논설을 이끌어내었다.

[4]의 서두에서 흑은, 흰 것과 검은 것이 곧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이는 백은 곧 깨끗함, 흑은 곧 더러움이라는 등식의 통념을 우선적으로 깨트리는 발언이다. 백과 흑이 서로 다투고 함께 따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각자의 회고 검다는 표면적 특징만으로는 서로의 우열을 판가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상에 비추어 징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다.

세상에서 백을 싫어하고 흑을 좋아하는 일례로, 우선 백은 늙음을 상징하고 흑은 젊음을 상징한다는 점을 들었다. 사람이 젊을 적의 검던 머리는 점점 변하여 하얗게 되는데, 이 때 사람들은 모두 젊음이 떠나간 것을 한스러워하고 늙음이 찾아온 것에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은 흑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새하얀 백은 사람의 미움거리가 되므로 흑의

가치가 백보다 월등히 높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백과 흑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백을 대표하는 인물은 伯夷와 屈原이고, 흑을 대표하는 인물은 趙孟과 季氏이다. 신하인 武王이 천자인 紂王을 토벌한 일이 仁義에 위배된 일이라고 해서 주나라 곡식 먹기를 거부했던 백이는 결국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모두들 취해 있는데 혼자만 깨어있음을 한탄했던²⁴⁾ 굴원은 모함을 받고 長沙에 유배되었다가 멍라강에 투신해 죽었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막대한 권력가였던 조맹²⁵⁾과 춘추시대에 大夫의 신분으로 천자의 예를 사용하여 공자의 비난을 받았던 계씨²⁶⁾는 존귀하고 욕망을 다하였으며 안락과 영화를 마음껏 누렸다. 이 후에도 길고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흑의 논리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여 따르고자 하는 대상은 고결하고도 귀한 존재이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여 버리고자 하는 대상은 더럽고도 천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흑이 백을 분토보다도 더 더럽다고 매도하는 이유는 백이라는 본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한다는 외부적 상황에 전적으로 기반한다.

[1]단락에서 흑이 자신을 더럽힐까 걱정되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백의 도발의 결과는 자못 참담하다. [4]단락의 마지막에서 흑은 백에게, 스스로 치욕스러워할 겨를도 없을 것인데 어느 겨를에 자신을 더럽게 여기느냐며 물러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다. 이에 대해

24) 屈原, 『漁父辭』. “舉世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25) 趙孟은 『孟子』 「告子上」의 “조맹이 귀하게 해준 것을 조맹이 천하게 할 수 있다.(趙孟之所貴, 趙孟能賤之.)”라는 언급에서 등장한다.

26) 『論語』 「八佾」에서 “공자께서 계씨를 두고 말씀하셨다. ‘八佾舞를 뜰에서 춤추게 하니, 차마 이 짓을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孔子謂季氏, 八佾, 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라고 하였다.

서 백은 흑의 발언에 말문이 막혀서 한참이나 멍하게 실의해 있다가, 백과 흑의 역학관계에서 흑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힐난을 벌이지 못한다. 흑의 논리에 할 말을 잃은 것이기는 하지만 흑이 말한 가치관에 마음으로 설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한쪽이 강해지면 자연히 한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힘의 역학구조 상 어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더 이상 논리를 펼치지 못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흑과 백이라는 등장인물이 벌이는 문답이라는 허구적 장치 속에서 흑과 백으로 상징되는 가치관의 실존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다. 작자가 자신의 의론을 직접적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등장인물의 입에 가탁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우의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선을 경시하고 악에 가치를 부여하는 흑의 장황한 의론에 백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수궁을 한다는 결말을 통하여 선과 악의 가치관이 전도된 당대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밖에 「노마설」 역시 줄거리와 비유와 기탁이 있다는 점에서 우언의 서술방식으로 작성된 글이다.²⁷⁾ 주인과 늙은 말의 대화를 통하여 도움이 될 때는 인정사정없이 부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각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데, 글의 주지를 말의 발언에 가탁하여 우의성을 드러내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약해진 말에게 가고 싶은 데로 풀어주겠다고 하는 주인의 발언에 대하여 늙은 말은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듯, 고개를 들고 하소연하는 듯 오랫동안 몸을 구부리고 있다가 입으로는 말을

27) 주인이 늙은 말을 방출하려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방출하지 않은 사건이 ‘줄거리’이고, 늙은 말과 주인의 관계를 신하와 군주의 관계에 비긴 것이 ‘비유’이며, 늙은 말의 발언 속에 작자의 생각을 투영하여 서술한 것이 ‘기탁’이다.

못하였지만 가슴으로 대답을 하였다.”²⁸⁾ 늙은 말이 입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완벽한 의인화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가슴으로 대답을 한 것’은 작자의 상상에 의해 말의 대답이 꾸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늙은 말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소연하는 듯하였다는 것 역시 작자가 늙은 말에 감정이입을 한 것일 뿐, 그 감정에 있어서 말이 주체가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이 작품의 우의성이 가지는 극적효과가 다소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상 속의 말의 발언에 작품의 주체가 가탁되어 표현된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간에게 부러지는 존재인 가축의 입을 통해 노골적인 비판을 받는 인간의 처지는 더욱 비참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우의성이 획득한 성과이다. 작자가 곧 서술자가 되어 글의 주제를 표출하는 의론문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독자가 받아들이는 정서적 공감과 비판적 교훈의 차이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목근침설』에서는 길가에 버려진 나무등걸과 그 나무등걸을 주워서 목침으로 만든 일화(A)를 통하여 만물은 모두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위정자가 인재를 알아보고 잘 등용해야 한다는 결론(B)을 도출하였다. (B)에 대한 의견을 펼치기 위하여 (A)를 우선 거론한 것인데, (A)를 말하고 난 후에 비로소 (B)를 말하였기에 작자의 의론은 독자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 (A)를 서사부, (B)를 논설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인데, 서사부에 오로지 주제를 가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에 비해서 형상성과 함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논설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서사부에서 소개되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비유되어 있

28) 洪宇遠, 『南坡先生文集』 卷10, 雜著·說, 「老馬說」. “馬乃俯耳若聽, 仰首若訴, 蹠踣良久, 口不能言, 而以臆對.”

다. 버려진 나무는 버려진 선비로, 나무에 가해지는 도끼와 동물의 재앙은 선비에게 닥치는 시련으로, 울퉁불퉁한 나무뿌리의 형상은 불우한 선비의 불평한 기운으로, 가치를 되찾은 목침은 위정자에게 등용된 선비로 비유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야한다는 글의 주제가 서사부에서 소개된 일화에 가탁되어 투영된 점과 서사부와 논설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한 비유 등에서 이 작품의 우의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仁祖에서 肅宗 연간에 활동한 문인 관료인 南坡 洪宇遠의 논설류 산문에 대하여 그 소재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의 논설류 산문에서는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단편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각종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 효과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표현하였다. 이에 그의 논설류 산문이 친근한 소재를 통하여 독자의 공감을 확대한 점, 문답의 서술방식을 통하여 논리성을 강화한 점, 우언의 서술방식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홍우원의 설 작품에서는 버려지는 늙은 말, 나무등걸로 만든 목침, 빨이 난 말과 고양이, 흑색과 백색 등의 친근하거나 흥미를 끌만한 소재를 통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또한 주인과 늙은 말 사이의 대화, 백색과 흑색이 벌이는 허구적 문답을 가설하여 답변자의 발언 속에 작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주제를 논리적이면서도 설득

력 있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당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기탁을 통하여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홍우원의 논설류 산문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그의 논설류 산문이 당대 현실과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바, 그의 문집에 방대한 분량으로 남겨져 있는 상소문과 병행하여 접근했을 때에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차후의 논의를 통하여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洪宇遠, 『南坡集』, 한국문집총간 196, 민족문화추진회.
- 김남기, 「남과 홍우원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389~417쪽.
- 송혁기, 「한문산문 ‘說’ 體式의 문학성 再考」, 『한국어문학』 58, 한국어문학회, 2006, 233~255쪽.
- 양승민, 『우언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 학고방, 2008.
- 우지영, 「문답식 한문 산문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윤승준, 「한국 우언의 인물 설정 방식과 우의」, 『국문학논집』 22,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149~179쪽.
- 윤주필, 「우언 글쓰기의 원리와 적용 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5~35쪽.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 이종묵,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87~211쪽.

Abstract

The Study on Editorial Prose of Nampa(南坡) Woo-Won Hong(洪字遠)

Woo, Jee-Young

Nampa Woo-Won Hong(1605~1687) is a literary bureaucrat who acted in Sukjong ~Injo. 『Nampa collection』, Woo-Won Hong's work collection, is largely comprised of poems and Sangsomun and the number of prose works such as Gi, Seol, and Seo. However, Woo-Won Hong expressed the criticism consciousness on the social reality of that time in an effective and interesting way through all kinds of literary devices rather than revealing it in a fractional and straightforward manner. Hereby this paper analyzed Won-Woo Hong's editorial prose focusing on its material and descriptive way.

『Nomaseol』 among Woo-Won Hong's editorial prose described the criticism consciousness on the social condition that something is thrown away if it becomes useless by focusing on the conversation the old horse and master have, and 『Mokgeunchimseol』 expanded the discussion with the deep subject which could alarm the society by starting the story from the routine material of wooden pillow. 『Gakseol』 criticized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at time by considering the horned horse and cat as a material, and 『Baekheuknan』 contained the criticism and satire on the reality that the sense of values of right and wrong was reversed through Byeonnan that black and white fought.

These works expressed the subject effectively by bringing about the readers' sympathy through the intimate material such as thrown old horse, wooden pillow made of tree, white and black colors. Also, it revealed the subject logically by hypothesizing the fictional question and answer of white and black,

question and answer of old horse and master. And it expressed the subject indirectly through the metaphor and deposition rather than referring to the reality of that time in a specific and direct way.

Key Word

Nampa Woo-Won Hong(南坡 洪宇遠), 『Nampa collection(南坡集)』, editorial prose, catechetical prose, figurative characteristics, 「Nomaseol(老馬說)」, 「Mokgeunchimseol(木根枕說)」, 「Gakseol(角說)」, 「Baekheuknan(白黑難)」

- 논문투고일 : 2014.7.2. 심사완료일 : 2014.8.4. 게재결정일 : 2014.8.12.